

『화산도』의 여성주의적 독해

—여성 목소리의 시작점과 합류점을 찾아서

장은애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 1 서론: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 2 제주여자, 4·3에서 지워진 존재
- 3 남성에 의해 전유(轉有)된 여성의 이야기
 - 3.1 도둑맞은 여성의 고통
 - 3.2 여성성 신화의 여성혐오적 측면
- 4 서사로부터 용기하는 4·3의 여성들
 - 4.1 부엌이, 싸우는 여자
 - 4.2 이유원, 연대하는 여자
 - 4.3 문난설, 교란하는 여자
- 5 곧, 터져나올 목소리를 찾아서

『화산도』에서 여성인물의 의식을 주목하면 4·3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인식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여성인물의 의식이 생성되는 자리가 남성의 의식이 놓인 자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성이 인식과 발화의 정통성을 독점한 상태일 때 여성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4·3을 조망한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 중심으로 직조된 4·3 인식에 대하여 위화감을 느끼고, 여성의 그러한 감각은 4·3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탐색과 사유를 산출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여성은 현실과 연결된 유·무형의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탓에 기존 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그러한 이유로 여성의 자리에서 송출되는 ‘역사’에 대한 발화는 기존의 언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형태로 굴절되면서 낯선 언어로 재구성되고 채워진다. 이렇듯 여성의 현실은 안정된 질서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교란하고 위협하면서 4·3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4·3을 재인식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이라는 존재의 실존적 취약성 때문에 대범하고 전위적인 기획이 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의 2장에서는 4·3으로부터 여성들의 존재가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추궁한다. 이어서 3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화산도』의 서사적 ‘재현’이 어떠한 문제를 노정하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4·3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능동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명한다. 구체적으로 『화산도』의 여성인물 세 명을 조명한다. 투사 부업이, 혁명의 연대자인 이유원, 남성의 관념을 교란하는 문난설이 그들이다.

이처럼 『화산도』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에 주목함으로써 4·3 비극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혁명’으로서의 4·3에 대한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젖히고자 한다.

국문핵심어: 페미니즘, 4·3, 『화산도』, 혁명, 의식(목소리), 다성성

1 서론: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화산도』¹는 4·3을 ‘혁명’으로 재정의하고자 할 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4·3을 경험한 인물들의 의식이다. 각각의 인물은 4·3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자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식들이 맞물리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4·3을 다른 방식으로 사유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4·3에 대한 서사 속 인물의 의식은 서사 바깥의 4·3 인식과 동일한 지평을 보유한다. 소설에서 서사와 서사 밖 현실을 매개하는 것이 인물의 의식인데, 이러한 인물의 의식은 소설의 서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로 발전하여 현실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사가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킬 에너지와 갖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²

- 1 연구의 텍스트는 2015년 번역·출간된 보고서판 『화산도』(총12권)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판본에 대한 정보는 따로 표기하지 않으며, 책의 본문을 인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권수: 페이지를 표기하도록 한다.
- 2 바흐진은 서사 속 인물의 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와 서사 바깥을 매개하고 현실을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는지를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현실에서의 개별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은 서사 속에서 예술적-상징적 이미지로 변형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의 물리적인 대상은 이데올로기적 생산물로 재창조된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적 생산물로 변형된 대상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는 있지만 현실 그 자체는 아닌 하나의 ‘기호’로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적 생산물이자 기호인 “대상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현실의 일부분이 될 과 동시에 어느 정도 자기 이외의 다른 현실을 반영하고 굴절”시킨다. 그러한 연유로 기호는 “현실을 반영하고 굴절”시키며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현실에 충실하기도 하며, 더러는 현실을 특정한 시각으로 인식할 수도 있”게끔 한다. 또한 바흐진은 기호를 통한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재창조가 실현되는 과정을 가리켜 “기호에서 기호에 이르고, 그리하여 더욱 더 새로운 기호에 도달하는 이데올로기적 창조성과 해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처럼 기호를 매개한 이데올로기적 창조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다름 아닌 개개인의 ‘의식’이다. 의식은 기호들로 채워져 있고, “기호에 대해 기호로 응답하는 것”인 이데올로기의 연쇄는 개별적인 의식들을 결합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처럼 의식은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생산물인 기호가 거쳐하는 장소인 까닭에 서사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호가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재창조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인 까닭에 세계에 대한 변혁의 에너지가 내재된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M.바흐진·V.N.블로쉬노프, 송기환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90, 15-21쪽 참조).

『화산도』의 서사는 대화적 상황 속에 인물들의 의식을 배치함으로써 4·3에 서 혁명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그려낸다. 『화산도』에서 각각의 인물은 4·3에 대한 자신만의 고유한 인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4·3을 전일화한 당위가 아닌 다원화한 폴리포니(Polyphony)로서의 혁명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전제이다.³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의식이다. 『화산도』가 여성인물의 의식을 혁명이 추동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진행시켰느냐하면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부엌이, 이유원, 문난설 등 『화산도』에는 여러 중요한 여성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의식이 남성 인물들만큼 철저하게 전개된다고 보기 어렵다. 혁명이 4·3에 대한 인물의 의식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⁴

-
- 3 바흐진의 서사 방법론인 다성적 대화주의에 의해 정초되는 혁명은 “다양한 의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들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미하일 바흐진,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諸)문제』, 중앙대학교 출판부, 2011, 48쪽)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혁명의 모습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타인의 자율적 의식을 수용하기 위해 그 의식을 특별히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재건시키”(같은 책, 89-90쪽)는 과정 속에서 미정형의 가능성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이는 본 논문이 4·3로부터 이끌어내고자 하는 혁명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 4 권귀숙은 “여성의 기억은 남성의 기억과 다르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거와 남성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사건이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전쟁/제노사이드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때, 여성 경험과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기억의 불완전한 전송뿐만 아니라 생존 여성의 상처마저 하찮은 것으로 정리되거나 여성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권귀숙,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젠더연구」, 『탐라문화』 제45호, 탐라문화연구원, 2014, 173쪽)라고 말하며 비극적 사태를 총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쟁경험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상에서 권귀숙은 4·3에 대해 여성과 남성이 직면하게 되는 실존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4·3이 남성의 기억으로 전유(專有)된다면 4·3의 기억을 재건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불완전함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판한다. 또한 김현아는 권귀숙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전쟁과 전쟁의 기억과 기억의 재현에서 시선의 바깥에 놓여 있던 여성들의 고통을 사회적인 것으로 만들 때, 그리고 그녀들이 겪은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가져온 배경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이 가졌던 무관심과 공포에 대해서도 같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터덕, 2004, 139쪽)

4·3 당시 많은 여성들이 갖은 수난을 겪었다. 이후 4·3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힘입어 4·3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존재는 비교적 가시화하지 못했다. 가시화한다고 하더라도 계급이나 민중 등 집단적 정체성의 일부분으로서 다소 제한적으로 조명됐다. 여성에 주목했던 『화산도』의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⁵ 한편 문학연구는 아니지만 사회학이나 역사학, 여성학에서도 젠더의 관점에서 4·3과 여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러한 연구들은 생애사나 구술사, 4·3에서의 여성의 위상학적 위치 등을 주제로 삼았다.⁶

그렇다면 4·3과 여성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할 때 『화산도』를 겹쳐 봐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화산도』는 기본적으로 남성인 이방근을 중심으로 직조된 서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인물에 주목함으로써 남성 중심적 시각

다고 언급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대어 본고의 문제의식을 좀 더 심화해 본다면 여성의 체험이 배제된 불완전한 속에서 4·3을 ‘혁명’으로 사유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공통각각이 생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4·3을 혁명으로 재사유함에 있어 그것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해로까지 확장해 볼 수 있다.

- 5 임성택, 「김석범 『화산도(火山島)』의 여성 인물 연구」, 『일본어문학』 제81권 0호,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김석범의 ‘4·3소설’ 연구—작중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박필현, 「폭력의 경험과 근대적 민족국가—초기 4·3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3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 6 권기숙,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젠더연구」, 『탐라문화』 제45권 0호, 탐라문화연구원, 2014; 「기억의 재구성 과정—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제38권 1호, 한국사회학회, 2004;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김성례, 「국가폭력의 성정치학—제주 4·3을 중심으로」, 『흔적』 제2호, 문화과학사, 2001;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 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김인근과 현신봉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47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정원옥, 「끝나지 않은 애도: 4·3사건 피해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4·3과 역사』 제16호, 제주4·3연구소, 2016; 염미경, 「제주 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 인권 그리고 평화」, 『4·3과 역사』 제17호, 제주4·3연구소, 2017; 김은실,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4·3과 역사』 제18호, 제주4·3연구소, 2018; 박상란,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9;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으로는 볼 수 없었던 4·3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찰해 내기도 하는데, 그러한 인식은 여성인물만의 불안정한 실존적 자리로부터 출현한다.

남성만이 인식과 발화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자리에 서서 4·3을 조망한다. 여성은 자신이 처한 불안정하고 취약한 실존적 지위로 인해 남성을 중심으로 직조된 4·3 인식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위화감을 느낀다. 그러한 이유로 여성의 자리는 4·3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탐색과 사유를 산출하는 조건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은 현실과 연결된 유·무형의 자원으로부터 소외된 탓에 기존 질서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여성의 자리에서 송출되는 목소리는 역사의 이해(理解)와 충돌하고 어긋나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는 기존의 언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형태로 굴절되면서 낯선 언어로 재구성되고 채워진다.

여성들의 현실은 기존의 안정된 질서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교란하고 위협하면서 4·3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낸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4·3을 재인식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여성이라는 존재의 실존적 취약성 때문에 대단히 대범하고 전위적인 기획이 된다. 이처럼 여성의 실존적 자리와 그러한 조건으로부터 발화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4·3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 4·3의 혁명으로서의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젖힐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의 2장에서는 4·3로부터 여성들의 존재가 지워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추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증언을 중심에 두고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소외했던 사회·역사적 맥락을 살핀다. 이어서 3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화산도』의 서사적 ‘재현’이 어떠한 문제 상황을 노정하는지 경야(經夜)사건과 부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핀다. 또한 4장에서는 4·3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능동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명한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성들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화산도』의 여성인물 세 명을 조명한다. 투사 부엌이, 계급적 각성을 바탕으로 부엌이와 연대하고자 하는 이유원, 이방근의 관념으로 범람해 들어오는 문난설이 그들이다. 이들 세 여성은 관념을 통해 그들을 포획하려

는 이방근의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키고 나아가 그의 관념을 압도하면서 4·3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2 제주여자, 4·3에서 지워진 존재

4·3 당시 제주여성이 처한 폭력적 상황은 생활고에서 시작해 노동착취, 혈육의 상실, 생활기반의 파괴, 실존적 위기, 생명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이 실로 다양했다.⁷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성폭력이었다. 제주여성에게 가해진 이러한 성폭력이 특별히 더 문제적인 까닭은 그것이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강력한 ‘금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4·3 당시 제주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고발·증언 가운데에서도 유독 충격적인 내용은 민관군경이 ‘빨갱이 소탕’, ‘공비토벌’이라는 미명 하에 ‘빨갱이 씨를 말려야 한다’며 임신부를 육보이고 뱃속의 태아까지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충격적이지만 폭력만큼이나 경악스러운 것은 폭력을 행사하며 가해자가 구사하는 논리이다.

우리는 아래의 인용을 통해 토벌대가 제주여성을 성고문하면서 동원한 논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이 ‘입산자’로 몰려 한 젊은 여성이 끌려왔다. 참으로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정주임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포착한 듯 눈을 빛내면서 대동청년단원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녀의 옷을 다 벗겨 나체로 그 앞에 세우고 했다.

나체가 된 그 여성은 임신 중이었다. 정주임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다.

7 오금숙은 4·3 당시 여성이 겪은 피해 사실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먼저 4·3 전시기에 걸쳐 발생한 피해를 정리하고 4·3의 전개를 세 시기로 구분한 뒤 각각의 시기에 두드러진 피해를 정리하는데, 그에 의하면 4·3 전시기에 걸쳐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강간, 살해가 발생했고, 4·3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제주여성과 육지 응원경찰 및 서북청년들의 강제결혼 사례가 두드러졌으며, 4·3 후반기부터 4·3 이후까지는 생계유지, 연좌제, 호적 사회적 편견과 멸시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오금숙, 앞의 글, 237-238, 249쪽 참조).

“이 빨갱이 간나 새끼들이 붙어먹었구만 이?”

정주임은 옆에 세워놓았던 총부리를 난로에 넣어 벌겍게 달궜다. 그리고는 그 여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가랑이를 벌리더니 달군 총부리를 그 여성 성기에 찔러 넣었다. 그녀의 단말마 비명과 함께 살이 타는 냄새가 지서 안에 진동했다.⁸

인용문은 입산자로 몰린 남성의 아내가 토벌대에 끌려 왔는데, 여자의 벗은 몸이 드러나면서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토벌대가 여성을 성고문했다는 내용이다. 끌려온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토벌대 정주임⁹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는 임신한 여성을 보고 “이 빨갱이 간나 새끼들이 붙어먹었구만 이?”라며 욕을 한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민이 ‘빨갱이’라는 인종적 타자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¹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성은 ‘빨갱이’를 재생산하는 부정한 신체로 물화하고 있다.

‘빨갱이 사냥’의 배후인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를 역전시키려는 일련의 기획 하에 제주도를 ‘빨갱이 소굴’로 낙인찍고 탄압했다.¹¹ 그

8 한림화, 「기조강연: ‘제주4·3사건’ 진행 시 제주여성사회의 수난과 극복 사례」, 『역사의 상처, 문학의 치유』, 제주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4·3문학 세미나 (제주: 한국), 2018, 32쪽.

9 정주임(정용철)은 서북청년단 출신 경찰간부로서 4·3 당시 여성에게 가학적인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다(위의 글, 31쪽).

10 ‘빨갱이’를 둘러싼 ‘인종주의’적 담론은 비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인종적 편견이 일단 한 번 발동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빨갱이’의 인종적 특징을 지시하는 기정사실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 구성력을 갖는 담론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빨갱이’라는 인종적 편견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담론효과를 발휘하는지는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선인, 2019) 556-561쪽 참조.

11 권귀숙은 4·3에서 자행된 대량학살의 동학을 설명하면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기까지의 심리적 동인을 ‘배제정책’, ‘권위화’, ‘일상화’, ‘비인간화’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는 학살의 배후인 국가의 주도하에 ‘우리’인 ‘국민’과 비국민이자 ‘적’인 제주도 사람을 구분하여 경계 짓고(배제정책) 학살을 정당화하며(권위화) 학살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일상화) 최종적으로는 제주도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비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 학살을 담당해야만 했던 토벌대가 인간을 죽이는 것에 무감각한 ‘살인기계’로 혼용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에서 끔찍한 대량학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권귀숙, 『기억

과정에서 제주도민은 이미 ‘빨갱이’를 생산한 죄가 있으며 장차 ‘빨갱이’를 생산할 수 있는 불온한 존재라고 간주되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여성은 ‘빨갱이’를 재생산할 수 있는 ‘위협적인 몸’으로 대상화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빨갱이’의 재생산을 방지¹²하고 ‘빨갱이’의 부정한 신체를 국민의 양순한 신체로 ‘정화’하고 ‘길들이’는 행위라고 정당화되었다.¹³

한편, 제주여성은 남성분위 가부장제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 내부의 희생양으로서 지목되기도 했다. 다음의 증언은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서청단원 소장은 ‘홍아무개’가 자신의 약혼녀를 성노리개의 제물로

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71-97쪽 참조). 권귀숙의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4·3을 둘러싼 증오와 혐오가 국가폭력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4·3을 둘러싼 증오와 혐오를 직시하고 그것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의 공모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토벌대에게 일어난 인권유린을 추궁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 싶다.

12 김성례, 앞의 글, 273-281쪽 참조.

13 김성례는 해산 중 갑자기 들이닥친 하귀특공대에 의해 입산자의 아내라며 살해당한 문씨 여인(증언은 문씨 여인의 손윗동서인 안인순)의 사례를 소개하며 ‘빨갱이의 몸’이라는 메타포가 생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이를 출산하고 있는 여성을 살인해야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녀는 또 다른 빨갱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는 임신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빨갱이의 몸’의 위험은 우선 빨간 색 자체의 상징성과 출산하는 몸이 연상시키는 ‘피가 흐르는’ ‘열린 몸’의 상징성에서 도출된다. 또한 빨간 색은 반역의 색이며 공산주의자의 색이다. 빨간 색은 반공국가에서 정치적인 금기의 색이며, 그것이 연상하는 또 다른 피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보다 복합적인 의미망을 만들어낸 것이다. ‘빨갱이의 몸’은 오염의 위험이 있는 몸, 즉 흐르는 피로 사회를 붉게 물들일 수 있는 몸이며, 동시에 피의 흐르고 침투하는 성질과 결부된 빨간 색의 몸은 사회에 불온한 기운을 퍼뜨리는 선정적이고 매혹적인 몸이다. 위의 증언에서 ‘빨갱이년’의 ‘열려진 몸’은 폭력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의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한 불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욕망의 대상을 고문하거나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억압된 성적 욕망을 해소한다. ‘빨갱이년의 열린 몸’의 감염성과 선정성은 빨갱이의 정치적인 위험으로 인식되어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동네 이웃 청년으로 하여금 안인순의 동서를 서둘러 살해하도록 이끈 것이다. 임신한 ‘빨갱이의 몸’에 가해진 잔혹성은 빨갱이 인종을 제거하기 위한 인종말살의 행위와 같다. 성적 욕망의 대상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반공국가는 온전히 정화된 남성의 건강한 몸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위의 글, 2001, 279-280쪽)라고 설명한다.

바친 대가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풀려 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약점으로 잡고 다시 ‘홍아무개’를 잡아들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조카딸을 주면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살려준다는 조건을 노골적으로 제시하였다. ‘홍아무개’는 자신이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니 제발 서청단원인 그 소장과 조카딸을 결혼시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문중에 호소하였다.

결국 ‘홍아무개’는 조카딸을 그 서청지서장과 정략결혼을 성사시켜 이후 비교적 토벌대와 특별중대나 특수대는 물론 경찰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한다.¹⁴

인용문에 나타난 홍아무개의 사례와 같이 약혼자나 남편, 혹은 집안의 남성을 석방한다는 조건으로 여자를 토벌대에 시집보내 가문의 안위를 보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본위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는 존재였고,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가부장제 공동체 내에서 여성이 속한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다.¹⁵ 따라서 제주 가부장제 사회는 가문의 불명예인 여성의 성폭력

14 한립화, 앞의 글, 26-27쪽.

15 김현아는 『전쟁과 여성』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전시 성폭력이 가부장제와 군사전략이 공모한 합작품임을 폭로한다. 그는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 “성화된 폭력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적’ 남성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모욕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는 가정 하에 전략적으로 채택되는 군사전술”임을 지적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군사전술로서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던 가부장 공동체의 일상적인 폭력과 억압이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는 여성 개인의 몸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가부장제 사회가 일상적으로 만들어 내는 상징과 신화, 기표들에 점령당하고 오염된 몸이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 개인을 향한 폭력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적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었다. 즉, 전시 성폭력은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 억압이라는 현실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결과인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시 성폭력과 가부장제적 억압은 여성을 둘러싼 별개의 폭력이 아니다. 그 둘은 오히려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욱이 전시 성폭력은 가부장제라는 여성 억압구조를 토대로 하여 작동한다(김현아, 앞의 책, 57-58쪽 참조).

피해 사실이 집박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터부시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억압했다.¹⁶ 그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해 여성을 가리켜 토벌대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더럽혀’진,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라고 하면서 멀리하고 공동체로부터 배척했다.

이렇듯 제주여성은 가부장제의 존속을 위해 희생양으로 지목된 것도 모자라 공동체의 타자로서 배척되었고, 급기야 입이 있어도 말 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러한 기현상은 정원옥이 지적하듯 “4·3사건 피해여성들은 말할 수는 있지만, 인종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가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가운데서도 성폭력 피해경험은 남성 중심의 지배담론 사이에서 여전히 말할 수 없거나 침묵당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었다.¹⁷

이처럼 겹겹의 폭력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고통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다. 여성들은 언어로 정리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에 대해 입을 닫고, 기억의 주체라는 역할로부터 자신을 소외시켰다. 제주여성들은 말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떠올릴 때면 실어증을 증세를 보이거나 말더듬이가 되었다.¹⁸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4·3 당시 제주여성은 겹겹의 억압과 폭력을 대면해야 했다. 더욱이 ‘빨갱이’라 불리는 인종적 타자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 질서의 타자였던 제주여성은 폭력의 교차로 한가운데 던져졌다. 또한 제주여성은 제주남성과 토벌대라는 이질적인 두 남성 집단을 매개하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을 ‘남성의 대가 되물림되도록 재

16 김성례, 앞의 글, 2001, 285쪽 참조.

17 정원옥, 「끝나지 않은 애도: 4·3 사건 피해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4·3과 역사』 제16호, 제주4·3연구소, 2016, 220쪽.

18 한림화는 여성의 고통을 전유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전시하는 남성들에 비해 정작 자신이 겪은 고통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기묘한 대조를 “제주여성 인권말살 현장 중에 직접적인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즉 성고문에 대한 사례는 들어도 또 들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았다. 그중에는 심지어 가해자들이 제주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예도 몇 건 있었다. 타살 또는 성고문을 직접 목격했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이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증언한 이들은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여성들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기록한다(한림화, 앞의 글, 21쪽).

생산을 매개하는 몸'이라고 파악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물화된 존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수의 폭력이 제주여성의 신체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폭력의 최종심급은 제주여성이 주체의 자리에서 소외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역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도려내졌다. 그것은 목소리의 부재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났다. 또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억압당했기에 여성은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대리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다.¹⁹ 이 때 여성의 목소리를 대리하는 것은 남성이었다. 이에 대하여 김성례는 “강간을 비롯하여 성적 유린에 관한 증언은 주로 남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²⁰

고통의 당사자인 여성은 입을 닫았고, 여성의 이야기는 남성의 입을 통해 대리 전달되었다. 그 가운데 여성은 4·3의 기억 공동체 속에서 실체 없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기억 공동체에서 사실상 여성이

19 이상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여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기억에 새겨진 4·3을 기록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다(고명철, 「탈식민 냉전 속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 『탐라문화』 제6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1;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각, 2019; 『4·3과 여성 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각, 2021). 이러한 시도는 4·3의 공식기억에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이 매우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남성을 매개하지 않은 여성의 경험이 공식 기억에 기입되기 어려웠던 지난날의 기억 생성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4·3을 증언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귀한 시도들이 몹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4·3에 대한 여성의 증언 중 적지 않은 사례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의 것’으로서 서사화하지 못하고 아버지나 오빠, 남편 등 남성의 이야기와 결부시켜 의미화하려는 경향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목소리를 기록한다고 해서 여성의 기억과 경험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이 직접 발화하는 순간에도 여성의 의식 및 사유를 구속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로서 가부장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억압의 구조를 직시하고 그것으로부터 우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임에 분명하다.

20 김성례, 앞의 글, 281-282쪽.

배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러한 기만은 4·3에서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는 현실을 은폐하여 비판의식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3 남성에 의해 전유(轉有)된 여성의 이야기

『화산도』는 기본적으로 남성인 이방근을 중심으로 구축된 서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화산도』는 여성들의 고통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4·3의 새로운 면을 통찰해 내기도 한다. 사건의 담지자로서 주요거점들을 장악한 남성에게 밀려 머무를 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여성들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4·3을 조망하는데, 그들의 이와 같이 불안정한 실존적 자리가 4·3의 다른 본질을 볼 수 있게끔 한다. 남성의 자리에서라면 볼 수 없었던 4·3의 새로운 면모는 이처럼 예외 상태에 놓인 여성들의 시각과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의 서사인 『화산도』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통찰은 남성인물인 이방근의 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자원으로 회수되는 경향이 있는데, 소설 속에서 남성이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여성의 자원을 흡수해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풍성하게 하는 경향은 각각 ‘경야(經夜)’²¹라는 문제적인 사건과 부엌이와 이방근의 성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상과 관련하여 ‘재현의 폭력’이라는 상황이 ‘재현’의 양식적 특성으로부터 말미암은 현상임을 지적하는 스피박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그는 재현의 현상학적 측면을 고찰하면서 재현이라는 개념에 내포한 ‘다시-제시(re-presentation)’와 ‘대변(speaking for)’의 긴장을 감지하고 이 둘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재현은 ‘다시-제시’와 ‘대변’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뒤엉킨 상태로, 재현으

21 경야(經夜)는 이유원의 동창인 오남주가 서울에서 유학하던 중 여동생인 오정애가 공비가 된 그의 큰 형과 일가친척의 목숨을 대신해서 서북청년단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와 모멸 속에서 살아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장례를 치른 사건으로, 이 사건은 가부장제 질서 아래서 자행되는 제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상징적인 살해행위라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다.

로 인한 문제는 이 둘이 연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재현의 양상 중 그 첫 번째는 어떠한 대상을 ‘다시-제시’하는 것이다. 이 때 재현되는 대상은 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표를 자처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묘사되거나 혹은 ‘대변’된다.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재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재현이 언어를 매개로 전개되는 현상임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대상이 자신을 재현하고자 언어를 발화하는 순간 곧바로 자신을 식민화하는 언어의 상징적 질서에 포획되어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재현의 언어는 대상을 식민화한다. 대상 스스로 자신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결과적으로 대상은 타자의 언어에 의해 대변되고 있다. 이렇듯 재현되는 대상은 재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타자화, 대상화의 폭력에 노출된다.²²

그러나 재현과 번역 혹은 독해의 불가능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우회의 전략을 강구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재현의 불가능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을 우회하여 여성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오게 될지, 그 가능성의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도둑맞은 여성의 고통

경야(經夜)는 여러모로 문제적인 사건이지만 남성에 의해 여성의 존재가 삭제되고, 여성의 빈자리를 남성이 차지해 버린다는 면에서 특히나 문제적이다. 그렇다고 할 때 여동생인 오정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욕의 땅’이 되어버린 제주도 를 지키지 못했다며 괴로워하는 오남주의 자기연민이다. 한편 오남주의 주변에는 항상 오정애의 환영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 그러나 오남주의 과장된 영웅심은 번번히 오정애의 흔적을 삭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애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서는 오남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22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8, 61-66쪽 참조.

제주도의 여동생이 서북단원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남주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밤새워 장사지내는 경야를 치르며 처음으로 자기 내부의 살해욕망을 자각한다. 그리고 다음날 이방근을 찾아가 자신의 그러한 내면상태를 고백한다.

“선생님, 그건, 그건 어젯밤,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만, 그것은 이상한 밤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어 주는 편이 얼마나 깔끔한 밤샘이 되었을지…….” 그는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휘청거리면서도 불쑥 일어났다. 그리고는 양팔을 벌리더니, 우와— 하고 마치 야수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그 애는 죽었습니다. 여동생도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그건 살풀이의 밤샘이었습니다. 이상한 밤샘이 아닙니다. 다 죽어 버려라!” (07:84)

오남주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죽어 버려라!’라며 세상을 저주한다.

여동생과 어머니를 향한 오남주의 원망과 증오는 토벌대를 향한 살의로 이어진다. 그럴 때 문제적인 것은 어머니와 여동생 또한 토벌대와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로써 폭로되는 진실은 ‘동포’의 피해와 고통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오남주의 감각 그 어디에도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남주는 “제주도로 건너가, 여동생의 남편인지를 여동생과 함께, 권총이 있다면 그것으로 쏴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고, 어젯밤 내내 생각”(07:70)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남주는 살의가 점점 응집되어 간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살의의 대상을 여동생의 남편인 양(楊)으로 구체화한다. 이처럼 오남주가 양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여동생의 삶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정애는 공비가 되어 입산한 큰 오빠와 일가친척의 목숨을 대신하여 서북의 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복자의 아내”(07:71)라 하여 제주 공동체로부터 백안시당했다. 서북인 남편은 제주도 사람에게 원수나 다름없다. 얹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공비의 가족이라며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제주도 땅 어디에도 오정애가 발붙일 곳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마저 죽게 된다면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남주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있지 않다. 증오의 감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오남주의 증오는 여동생이 겪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다. 오남주는 급기야 자신의 증오로 여동생의 고통을 장악해 버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정애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질 필요가 있다. 동생의 고통이 커질수록 양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남주는 동생의 고통을 날조한다. 오남주는 오정애의 빈자리에 자신의 자기연민을 덧붙여 동생의 삶이 더욱 비참하고 참혹하게 보이도록 각색한다. 그것은 동생의 비참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 오정애의 삶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태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은 미친듯 오열하는 오남주의 모친이다. 오남주 모친의 울부짖음은 여성의 박탈당한 자리와 목소리에 관한 몸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남주의 모친이 여성의 자리에서 바라본 4·3의 또 다른 본질은 오남주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오남주는 여동생을 유린한 양(楊)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사태가 종결될 수 있다고 믿지만, 오남주의 모친이 보기에 4·3이 초래한 비극은 그보다도 깊고 짙다. 오남주의 모친은 자신의 예외적인 실존으로 인해 그와 같은 진실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할 언어를 빼앗겨 버린 탓에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울부짖음이야말로 세계의 폭력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빼앗기고 비존재의 영역으로 추방당하여 육신으로 전락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이다. 오남주 모친의 귀에 거슬리는 울부짖음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선생님, 부디 저 좀 도와주세요. 전 늙은 몸, 죽어도 상관없지만, 딸이 불쌍해서……. 술에 취해 날뛰는 아들을,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둘 다 죽어 버리라고 울부짖는 아들을, 서울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의 제사를, 살아 있는 육친과 여동생의 경야를 자기 혼자 치렀다는 아들을 어머니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래저래 울며 호소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서복’의 자식이……. 아이고—, 태어날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우짜……. 하지만 ‘서복’의 자식이 태어나는 게 무서워요……. 부

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아이를 달래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이
우다……. (09:392)

경찰은 오남주를 수배하는 한편 그의 모친을 잡아들인다. 오남주의 모친은 울부
짖으며 이방근에게 도와달라고 사정한다. 그러면서 오남주 모친은 어수선한 말
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는다. 그녀의 서로 충돌하는 말들 속에 제주도여성이 겪어
야만 했던 고통의 복잡함이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자신을 저주하는 아들에게서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녀는 서북의 자식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죄 없는 생명이 마주해야 할 비정한 앞날을 내다보
고 비애감을 느낀다.

그녀는 현재의 비극이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해서 끝나지
않을뿐더러 원한과 증오에 의해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에 빙의하여 예감한다. 오남주의 모
친은 이 싸움의 현실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어두울지도 모르지만, 증오가 타자를
살해하는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모두가 상처입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진
실을 그 어떤 존재보다 깊이 통찰한다. 이것은 고통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비존재
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진실이다.

또한 오남주 모친의 절규는 비정한 세계에서는 생명이 환대를 받으며 태어
날 수 없다는 어둡고 절망적인 선언이기도 하다. 태어날 새 생명은 비정한 세계에
내던져질 거라는 사실 때문에 공포에 질린다. 태아의 공포와 오남주 모친의 비애
가 서로 공명한다. 태어날 생명은 모친에 빙의하여 비정하고 잔인한 세계에 대한
자신의 공포를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익히지 못한 탓에 그는 그저 울부짖는
다. 슬퍼서 울부짖고 두려워서 울부짖는다. 오남주의 모친도 울부짖는다. 슬프고
두려워서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이후 오남주 일가의 행적은 후일담처럼 전달된다. 오남주는 양(楊)을 권총으
로 사살한 뒤 입산했으며, 그의 모친은 공비의 가족으로 토벌대에 끌려가 아들에
게 귀순권고를 하다 아들이 숨어있는 아지트 근처 골짜기 아래에서 끝내 사살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오정애는 복숭아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 정
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죽은 그녀가 ‘남편’이 살해당하던

현장에 있었는지, 자신의 오빠가 양(楊)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단지 일전에 있었던 모친의 횡설수설에 따르면 목을 맨 시점에 그녀가 임신한 상태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태중에 아이까지 죽였다는 말이 된다. 정말 ‘살의’가 가장 강력했던 것은 오정애였을지도 모른다. 오정애의 죽음이 이토록 웅변적인 까닭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²³

3.2 여성성 신화의 여성혐오적 측면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여성은 남성과의 비대칭적 권력관계 속에서 남성의 관념에 의해 규정되고 재현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왔다. 이것은 여성의 자기소외, 타자화를 야기했다. 자신의 재치와 재능으로 세상을 탐구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욕구는 묵살되었고,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을 인식의 지배하에 둬으로써 세계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화산도』에서 이러한 문제는 부엌이와 이방근의 성적인 관계 속에서 주로 나타난다. 부엌이는 이방근의 집에서 살림을 봐주는 하녀이다. 그녀는 15살에 조혼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을 잃는다. 그 사이 그녀는 두 번의 사산을 경험한다. 남편을 여윈 부엌이는 이방근의 집에 상주하는 하녀로 들어간다. 한편 그녀는 이따금씩 이방근과 잠자리를 한다. 이방근은 자신과 성교하는 부엌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언제나 놀랄 만큼 부엌이의 하복부는 풍부한 털로 덮여 있었다. 그곳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린다. 알몸을 햇볕에 계속 드러낸다 해

23 하지만 오정애가 복중 태아와 함께 자살한 것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이를 죽이는 행위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비참하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고발이라는 점에서 저항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 털이 무성한 그 속까지는 빛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긴, 시간 냄새가 발효하여 출렁이고, 취해서 커진 이방근의 콧구멍을 더욱 크게 벌려 놓는다. 여자의 숨결과 함께 청새치 자반의 짙은 냄새가 밑바닥에서 무언가 꽃가루를 갈아 으갠 듯한 냄새의 층이 열린 두꺼운 목구멍 안쪽으로부터 격렬한 기세로 솟구쳐 올라온다. 그것은 이방근의 입안에서 확실한 형태를 이루며 팽창한다. 그는 냄새의 심해 속으로 해초를 몸에 휘감으며 잠겨 들고 또 잠겨 든다. (...) 부엌이는 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의 여체에 불과했다. 몸집이 큰 편이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2평방미터 남짓한 피부에 둘러싸인 60킬로 정도의 여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몸은 추상적인 냄새에 의해 확대되고, 하나의 여체를 넘어 자연의 공간 속으로 펼쳐져 간다. 그리고 하나의 존재로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한다.

이방근은 어두운 온돌방에서 땀이 뻘 몸을 맞비비며, 야광충으로 빛나는 숙취의 바다 속으로 계속 잠겨 들어갔다. 부엌이, 자네한테서 냄새가 나……. 자네 입에서 풍기는 냄새는 자네의 혼이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 듯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냄새이지 말이 아니다. 돼지가 똥을 위장 속에 밀어 넣는 생명의 리듬……. (01:281-282)

부엌이의 형상은 이방근의 관념과 뒤섞여 있다. 그 속에서 부엌이는 제주도의 자연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으로 변모한다. 이때 부엌이와 자연을 매개하는 것은 ‘냄새’라는 추상적인 감각이다. 무성한 음모로 뒤덮인 부엌이의 야성적인 육체는 해초가 넘실거리는 깊고 어두운 제주도의 심해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청새치 자반의 짙은 냄새 같은”(01:281) 부엌이의 토속적이고 관능적인 체취는 그녀의 육신을 벗어나 부풀어 오른다. 그것은 “여름철 풀숲의 훈김처럼 충만한 냄새, 깊은 바다의 해초떼처럼 흔들리는”(04:305) ‘추상적인 냄새’이다. 급기야 이방근은 자신이 “냄새나는 대지와 교합”(04:305)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 사이 부엌이라는 실체는 사라지고 냄새의 흔적만이 생명의 리듬으로 변주하여 순환한다. 이렇듯 부엌이는 이방근의 관념 속에서 생명의 리듬이 충만한 제주도의 원형으로 회귀한다. 이방근의 입장에서 부엌이와의 성적 결합은 제주도의 근원에 근

접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방근은 부엌이로부터 제주민중이라는 낯설고 이질적이며 두려운 타자를 발견한다. 제주는 생의 충동이 넘실거리는 생명의 도가니지만 한편으로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한 바다처럼 두렵고, 검고 거친 현무암 대지처럼 적대적이고 척박하다. 이방근은 친밀감을 표현하지도 않고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부엌이가 ‘돌하르방’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제주민중에 대한 이방근의 감각이기도 하다.

건물 양옆에는 현무암으로 만든 돌하르방이 묵묵히 서 있었다. 거대한 코, 푹 튀어나온 둥글고 커다란 눈, 짝 다문 커다란 입, 한 아름 하고도 반이나 되는 두루뭇술한 몸통에 새겨진 글러브 같은 양손. 병거지를 뒤집어쓴 모양으로 사람 키의 두 배는 족히 뒹직한 거대한 노인상은 거친 화산암 속에 말을 가두어 버린 듯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없다. 돌로 변한 노인이었다. 이른바 섬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마귀를 쫓는 수호신으로, 우석목(偶石木)이라고도 하는데, 무사도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인지 노파인 게 재미있었다. 성별은 확실히 판별하기 어렵지만, 여성인 경우는 돌할망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 모습은 마치 국민학생의 조각처럼 소박하고 괴이하다. 문득 돌하르방이 천천히 고개를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방근은 관덕정 옆을 지나갔다. 부엌이를 닮았다. 감정을 침묵하는 육체 안에 가두어 버린 듯한 부엌이의 표정과 닮아 있었다. (02:41)

우락부락한 눈과 코, 굳게 다문 입, 투박한 손, 거대한 몸집, 소박하고 괴이한 돌하르방의 모습은 이방근이 보는 제주사람의 형상 그 자체이다. 섬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수호신인 돌하르방의 투박한 생김새는 언뜻 낙천적이고 소박한 제주민중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단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은 내면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어떤 비밀도 발설하지 않는다. 제주민중이 돌하르방으로 표상될 때 그것은 그들의 불가해성에 대한 관찰자의

불안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방근은 제주민중의 생명력을 긍정하지만 한편으로 생명력의 근원인 자연의 불가해성 앞에서 위축감과 공포를 느낀다.²⁴

한편 이방근은 부업이와의 성교 도중 부업이—제주섬—제주민중을 가로지르는 관념의 직선회로를 발견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전개되는 장소는 이방근의 관념이고, 부업이, 제주섬, 제주민중이라는 개별적 대상을 매개하는 것은 왕성한 생명력이다.

이처럼 이방근에게는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방근이 가진 그러한 능력은 주체성 발현의 핵심기제이다. 반대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방근에 의해 존재가 결정되는 부업이의 실존적 지위는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강등된다. 그렇다고 할 때 이방근의 주체성은 부업이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그녀를 타자화 하는 폭력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업이와 이방근의 성적관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²⁵

부업이—제주섬—민중을 연결시키는 이방근의 의식의 경로에서 그 출발점

24 이방근의 환상 속에서 부업이는 종종 도끼를 들고 피바다 한 가운데 우뚝 선 인왕(仁王)의 형상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이는 타자인 부업이의 불가해성에 대한 이방근의 무의식적 공포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 이와 관련하여 브루스 핑크는 라캉의 주체성 이론을 분석하며 “성관계는 없다.”라는 라캉의 명제를 재해석한다. 핑크는 라캉의 주체성 이론을 충실히 독해하는 가운데 주체화 과정과 언어습득 과정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그는 남성주체의 주체화 과정이 언어습득과 연동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체가 욕망하는 것은 자기 안에 결여된 어떤 것, 실재하지 않는 무언가인 ‘대상 a’로서, 남성주체의 욕망은 언제나 이처럼 실재하는 않는 무언가인 대상 a를 향한다고 지적한다. 주체는 실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체의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은 성적결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성주체의 욕망은 “그녀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그녀의 모습이길 원하는 어떤 것, 혹은 어리석게도 그녀의 모습일 것이라고, 그녀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브루스 핑크, 『성적 관계 같은 그런 것은 없다』, 슬라보예 지젝 외, 김영찬 외 역,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10, 55쪽)에게 향한다. 다시 말해 남성주체는 “여자 그 자체가 아닌, 대상 a— 즉, 환상—와 ‘관계’를 갖는”(같은 글, 56쪽)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남성주체의 성적만족 즉, ‘쾌락’은 여성과의 직접적인 결합에서 오는 실재적 만족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는 대상과의 상상적 만족에 불과하다. 이는 남성의 성행위가 근본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관계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핑크의 논의를 경유하여 부업이와 이방근의 성적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은 부엌이의 ‘여성성’이다. 이방근은 부엌이의 여성성을 “심해와 같은 검은 치마”로 형상화한다.(07:355) 그 검은 치마 밑에서 피어오르는 “냄새의 바다”(09:208) 속에서 제주민중이 태동한다. 부엌이는 제주민중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체이다. 이 때에 부엌이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보다 자연에 가까운 존재로 간주된다.²⁶ 부엌이의 여성성이 곧 부엌이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을 여성성이라는 본질로 환원하여 숭배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혐오의 또 다른 모습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무시한 채 ‘여성성’이라는 본질주의적인 기표에 박제함으로써 이들을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고 실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신화적 영역에 구속해 버리기 때문이다.

4 서사로부터 용기하는 4·3의 여성들

『화산도』가 여성인물을 그리는 방식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화산도』는 개성적인 여성 인물의 활약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특히 부엌이, 이유원, 문난설의 활약상이 눈에 띄는데, 이 장에서는 이들 여성인물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방근을 중심으로 조직된 『화산도』의 서사를 전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26 거다 러너는 여성성에 부여된 신성이 여성의 생명잉태 능력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고대인은 생명을 주는 어머니가 삶과 죽음에 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믿음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여성의 힘을 숭배하는 여신숭배 신앙을 낳았다고 한다. 한편 러너는 여신의 몰락과 문자 발명의 관련성을 지적하며, 문자의 발명 이후 여성의 ‘생산’이 남성들의 ‘창조’로 대체되었고 그 과정은 남성에 의해 여성의 능력이 종속되어 가는 것과 한 궤로 맞물린다고 설명한다(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18, 256-269쪽). 이처럼 러너의 논의는 여성의 본질을 생물학적 성(sex)에 국한시키는 까닭에 생물학적 본질주의(biological essentialism)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이 신화화하는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정리하면 거다 러너의 논의는 여성성을 본질적인 상태로 귀속해 두려는 기획과 공모한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의 신화화를 통한 여성착취의 역사를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서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성의 성을 본질로 간주하는 그의 시각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여성착취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목적 하에 러너의 논의를 전략적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화산도』가 이처럼 돋보이는 여성인물을 창조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작가의 창작동기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의 ‘유방 없는 여자’ 일화는 작가 김석범이 제주 4·3에 관심을 갖고 4·3을 테마로 한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를 창작하게 된 계기로서 자주 인용될 뿐만 아니라 『화산도』의 여성주의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김석범은 1949년 초 무렵 밀항자를 인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26, 7세 가량의 유방이 없는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서 4·3에 관한 이야기와 그녀의 유방이 도려내진 내력을 전해 듣는다. 김석범이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4·3 당시 고문으로 가슴이 잘려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석범은 4·3을 겪고 고문으로 가슴이 잘려나가고 밀항선을 타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생사의 고비를 겪었을 그녀의 모습이 매우 담담하여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어서 그는 여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자신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4·3에 관한 소설을 집필해보고자 결심한다.²⁷

이상의 ‘유방 없는 여자’ 일화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김석범의 문학세계에 있어 그 근간을 이루는 원체험이다. 특히 제주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니힐리즘의 극복이라는 『화산도』의 중심테마를 정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화산도』에서 제주여성들의 위상은 관념을 뛰어넘는 구체적 실체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관념성을 뛰어넘는 구체적 사실성이 제주여성의 실존적 특징이라고 할 때, 그러한 제주여성을 바탕으로 창조된 여성인물들이 예의 『화산도』의 서사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성을 범람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실제로 4·3을 체험하지 않아 4·3을 관념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는 작가에게 있어서 제주여성은 4·3의 구체성으로서 육박해 오는 실체였을 것이다.

이러한 창작자의 태도나 인식이 4·3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했고, 여성들이 4·3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으며, 그 결과 전형에서 벗어난 개성적인 여성인물을 창조하도록 이끌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여성인물들의 개성이 주인공인 이방

27 ‘유방없는 여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김석범·김시중, 이경원·오정은 역, 문경수 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73-79쪽 참조.

근의 서사로 회수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각각 자신만의 독자적인 의식을 발전시키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방근과의 상징적·실질적 결합을 통해 자신들이 이룬 성과를 이방근에게 양도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성취를 제 것으로 받아들인 이방근은 현재의 상태에서부터 도약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엌이, 이유원, 문난설은 ‘이방근의 여자’라는 타이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도』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역할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성들이 일군 성취의 전부가 이방근에게 회수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잉여로 남아 이방근을 중심으로 직조된 『화산도』의 서사를 흔들기 때문이다.

4.1 부엌이, 싸우는 여자

부엌이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주인공인 이방근과의 관계에 한정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부엌이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이방근의 의식이 심화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점에서만 부각되었던 것이다. 특히나 부엌이는 이방근의 관념 속에서 제주도 민중을 표상하는 존재로 파악되어 왔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부엌이를 ‘투사’라고 불러주기를 요청한다.

부엌이에 대한 이방근의 위기의식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이방근은 표정을 알 수 없는 부엌이에게 은근히 두려움을 느낀다. 또 한편으로 자신의 관념 속에서 부엌이가 “큰 도끼를 든 인왕(仁王)”(08:196)이 되어 그의 정수리를 쪼개고 피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기도 한다.

커다란 부엌이의 모습이 귀 안쪽에서, 아니 더 깊은 머릿속 공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 큰 도끼를 힘껏 치켜들고 인왕처럼 우뚝 선 그녀의 주위는 피바다였다. 길바닥에 나뒹구는 참살된 사체,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며 황홀경에 던져 넣는 도끼의 빛과 피의 바다, 장작처럼 정수리를 두 개로 쪼개는 도끼는 없는가, 부엌의 손에 큰 도끼는 없는가……. 오랜만에 머릿속에 떠오른 환상이었지만, 이전과 같은 박력과 현실감은 없었다. (….) “……부엌이가 게릴라 측에 서서 큰 도끼를 치켜들고, 힘껏

도끼를 치켜들고, 장작을 켠다……. 핫, 핫하,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큰 도끼가 아니지. 그래, 죽창, 죽창을 꼭 쥐고 이 가슴을 푹 찢러 주면 좋을 텐데……. 음, 죽창, 이걸 좀 품이 안 나는군. ……장작처럼 정수리를 두 개로 쪼개는 큰 도끼가 발하는 빛은 어떤가? 그리고 피바다,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며 황홀경에 던져 넣는 큰 도끼의 빛…….

(05:195)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모두 이방근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러한 환상이 주종관계나 다름없는 현실에서의 이방근과 부업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근은 시체가 나뉘는 참혹한 풍경 앞에서조차 “성내에서도 모두 동시에 봉기해서 민중이 폭동을 … 이태수 일가는 습격을 받아 불타고, 참살된다…… 그런 유쾌한 환상의 유희였다구.”(05:196)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렵פות한 느낌으로만 존재하던 위기감이 구체적인 현실로서 실체를 드러낸 순간은 “기계나 노예처럼 온순”(01:281)하기만 하던 부업이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이다.

4.3이 심상치 않은 추세를 보이면서 게릴라들의 성내 활동 또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게릴라들은 서북과 경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이방근의 집을 그들의 아지트로 삼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지기이자 연락원 역할을 맡은 것이 그 집 하녀인 부업이로, 그녀는 게릴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집안 사람들 몰래 뒷문 자물쇠를 벗겨둔다.

게릴라를 집안에 들이는 일은 항상 조심스럽게 진행되지만,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가장 큰 위협에 빠지는 것은 부업이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이는 매번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업이는 혁명에 있어 주변적인 인물이 아닌, 위협을 무릅쓰고 누구보다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혁명의 주역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혁명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방근을 속이기도 하는 대단히 능동적인 인물로 평가해야만 한다.

부업이가 이방근과의 추문으로 인해 성밖으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화산도』는 부업이가 되돌

아온 이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유원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든지 선옥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든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부엌이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묵한 부엌이가 누설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 앞에서 확인한 사실들과 다음에 이어질 사건들을 단서로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²⁸

부엌이는 자신이 이방근의 집으로 되돌아 온 것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엌이가 말을 아끼기 때문에 오히려 서사를 적극적으로 해설할 가능성이 열리는 측면도 있다. 이방근의 집 안에서 게릴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뒷문의 자물쇠를 열어두는 것은 부엌이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엌이는 자신이 역할을 알기 때문에 이방근의 집으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녀는 혁명의 완수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인물이며, 혁명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투사’인 것이다. 이러한 부엌이는 이방근이 그리는 것처럼 수동적인 여성이 아니다. 이방근이 미련하고 의문스럽다고 표현하는 부엌이의 성격도 혁명가다운 과묵함과 진중함으로 재평가해야만 한다.

또한 부엌이의 내면은 이방근이 보는 것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 문면에 표현되지 않는 그녀의 심리는 매우 복잡하다. 이방근과 몸을 섞는 도중 그의 관념 속에서 자신이 인간이 아닌 자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을 때의 모멸감, 주인댁과 이방근을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 혁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숨겨야 하는 답답함, 혁명의 주변인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괴로움, 이러한 화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부엌이의 내면을 어지럽힌다. 그러나 부엌이는 자신의 내면에

28 이처럼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화산도』의 서사적 공란을 채우려는 시도가 서사나 인물에 대한 과잉해석을 낳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독법은 오히려 부엌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진실’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독해이다. 많은 경우 공적 기억과 목소리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의 기억과 목소리는 누락되어 있다. 이처럼 여성의 공식 기억으로부터 여성을 소외시키는 것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며, 여성에 관한 진실은 그러한 가부장제적 동기에 대하여 “저항하고 재해석하고 의도적으로 거슬러 읽기를 하고 전복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지배적인 의미를 바꿔놓아야만”(김현아, 앞의 책, 261쪽)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이야기 속에서 가려지거나 왜곡된 여성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재구성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자기분열의 파국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부역이가 게릴라들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행위는 그녀 스스로 자기 내부의 분열을 ‘혁명’의 파토스로 수습한 결과로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방근은 부역이가 게릴라들을 위해 뒷문을 개방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남승지들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자신이 언질을 준 것이라며 부역이의 자발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또한 그는 게릴라들이 자신의 집을 아지트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보다 부역이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두려움과 분노를 느낀다.

이방근이 부역이에게서 느꼈던 분노와 공포는 부역이의 뜻밖의 고백에 의해 현실이 된다. 4·3이 중반부²⁹를 지나면서 게릴라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삼엄해진 가운데 임무를 위해 성내에 잠입한 남승지가 이방근의 집으로 숨어들고, 이방근은 남승지가 전날 밤 부역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방근은 사건의 전말을 알면서도 부역이의 배신을 부정하고 싶은 나머지 급기야 지난밤 남승지가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왔을 거라며 자신을 속인다. 그러나 부역이는 이방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방근에게 그간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왔으며 ‘죄’를 고백한다.

“서방님, 저는 죽어도 모자랄 여자이우다. 제가 사람을 뒤쪽에서 들었수
다……. 주인마님을, 서방님을 배신한 지옥에 떨어질 여자이우다.”

(09:349)

위의 인용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거의 표현하지 않던 부역이가 자신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처럼 과묵하던 부역이

29 본 논문은 5·10 단선을 기점으로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이 실행되기 이전까지를 4·3의 중기라고 본다. 아울러 4·3의 전개 양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시기구분은 강성현, 「제주 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6쪽;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8-12쪽을 참조한다.

가 흥중에 아껴둔 말을 꺼내어 매우 드물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그 말이 주변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 또한 매우 충격적이다. 부업이의 고백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수동적인 방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매우 도발적인 선언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리하여 이제 부업이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수정되어야만 한다. 기존 연구에서 부업이는 제주민중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독해되어 왔다. 이것은 부업이에 대한 이방근의 평가에 기반을 둔 해석이었다. 물론 그러한 평가에 부업이의 성격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다. 오히려 부업이로 대표되는 제주도민의 왕성한 생명력을 긍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순전히 이방근의 관념에 의해 재현된 이미지라는 점은 문제적이다. 따라서 부업이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그녀의 성격을 재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부업이에 대한 이방근의 평가가 전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이유원, 연대하는 여자

『화산도』의 전체 서사를 통틀어 이유원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유원의 서사는 가부장제 현실의 모순을 간파하는 것부터 시작해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자각하는 것, 4·3이라는 민중항쟁의 당위를 깨닫고 그러한 변화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 등 매우 다채롭다. 한편 이유원이 이뤄낸 이처럼 많은 발전 중에서도 여성과의 연대, 특히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은 부업이와의 연대는 특별히 더 감동적이다.

이유원과 부업이의 연대는 이방근과 부업이 사이의 성추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부업이는 평소 이방근과 잠자리를 해 오던 것을 이방근의 계모인 선옥에게 들키고, 선옥은 부업이를 내쫓을 구실을 찾던 중 굶판을 벌려 이방근과 부업이의 관계를 폭로한다. 부업이는 선옥의 계략으로 이방근의 집을 떠난다. 한편 서울에 유학중이던 이유원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부업이와의 추문을 피하려 서울에 피신 온 이방근에게 부업이가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 듣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유학 중인 이유원이 제주도로 돌아온다. 이유원이

집에 돌아온 까닭은 집나간 부엌이를 설득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유원이 제주도로 돌아온 시기는 관에서 발급한 도항증서가 없으면 섬에 출입하는 것조차 통제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원이 제주도로 돌아온 것은 나름대로의 각오가 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방근은 이유원의 각오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일부러 돌아온 것이냐고 반문한다. 그러자 이유원은 “그 말은 서울에서 일부러 올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05:236)라며 오빠의 말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이유원은 급기야 부엌이를 만나기 위해 해방구로 찾아간다. 해방구에서 부엌이를 만난 이유원은 이 만남으로부터 제주도 민중의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유한계급적 삶에 대해 치열한 비판의식을 전개한다. 즉 해방구에서 있었던 부엌이와의 재회는 이유원에게 있어 자신의 계급적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의 탈피를 모색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저는 서울에 돌아가요. 하지만 우리 생활은 도대체 뭐가요. 조국이 두 개로 나뉘어 영원히 분열되려고 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는 때에, 우리들의 이 기생충 같은 생활은 뭐가요. 지금까지의 생활을 파괴하여 새로운 생활을 창조한다……. 저는 우리의 생활이 결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급우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어, 우리들은 지금 지원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주 입에 담고 있는 말이었는데, 유원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가정에서 자라난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면서, 오빠의 ‘무위도식’하는 생활에도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물론 제주도민에 의한 4·3봉기의 충격이 그녀의 계급적인 눈을 뜨게 만든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05:304)

해방구 방문을 기점으로 자신을 가리켜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이유원의 자기반성적 논평은 신랄하다. 이유원의 반성은 말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파괴하여 새로운 생활을 창조”(5:304)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유원은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뼈라를 뿌리다가 종로경찰서에 구류된다. 이유원의 석방을 위해 이방근이 서울로 올라오고 이유원도 무사히 풀려나지만, 이

유원은 감옥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자신만 특전을 받은 것에 괴로워한다.

이유원은 정치적 신념같은 것을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혁명의 연대자로 거듭난다. 그런 이유원을 지켜보던 이방근은 이유원이 위험한 사건에 휩쓸려 해를 입게 될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녀의 일본유학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유원은 조국의 어두운 현실과 동료들이 겪는 고통에 차마 눈을 돌릴 수 없다며 아버지와 오빠의 제안을 거절한다. 이처럼 이유원은 오빠인 이방근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결의한 인간이 앞으로 한 걸음씩 내딛듯이”(05:306)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계급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가부장제 질서 아래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재고(再考)한다. 그러나 이방근은 이러한 이유원의 사유와 실천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빠’라는 가부장제적 권위를 내세워 그녀를 항복시키려 한다. 이유원은 이러한 이방근의 독선에 저항한다.

이처럼 이유원은 이방근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주체로서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결국 오빠의 권위를 받아들여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원의 좌절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이유원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하기 때문이다.

부엌이를 찾으러 제주도로 돌아왔던 것이 일본유학 전 이유원의 마지막 섬 방문이다. 이유원은 섬을 떠나며 이방근에게 “오빠, 부디 부엌이에게 잘해 주세요.”(09:321)라고 당부한다. 이러한 당부의 말을 통해 이유원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발화한다. 따라서 오빠를 향한 당부의 말 속에 이유원이 도달한 최종적 인식이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이유원이 도달한 인식이 이와 같은 형태를 띠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부장제의 울타리를 뛰쳐나간 이유원 앞에 펼쳐질 미지의 길이 어느 방향으로 나 있을지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이유원이 밭을 내딛을 미지의 길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말의 의미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부엌이를 향한 이유원의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말이다. 동시에 그것은 가부장제의 구속을 박차고 나온 이유원이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처럼 두 가지가 연동되는 까닭은 이유원을 구속하던 가부장제의 질서, 신분·계급 질서 안에서는 경계 바깥에 속한

부엌이와의 연대가 생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³⁰ 여성으로서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이유원의 선언이 이처럼 타자를 향한 연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아울러 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선언과 타자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가 서로 연동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 리처드 로티는 자아창조로 실현되는 개인의 발현과 공동체의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기존의 질서나 진리를 절대화하지 않는 자유로운 풍토 속에서 발현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로티는 혁명에 대하여 그것을 가리켜 예정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 진부해진 기존의 질서나 가치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언어와 표현방식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을 계속하면서 창출되는 상상력의 힘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재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혁명과 연대 그리고 주체의 실현이 모두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³¹

한편 공통의 감각 없이 어떻게 연대를 획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로티는 오히려 공통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답한다. 그는 “인류의 연대성에 대한 아이러니스트의 느낌은 공통의 소유나 공유된

30 거다 러너는 가부장제의 울타리 안에서 가부장제의 온정주의적 지배에 길들여진 여성이 남성과의 의존적 관계를 통해 형성한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계급의 바깥에 존재하는 여성과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음과 설명한다. “공적 무력함(public powerlessness)과 경제적 의존상태에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강한 보호자를 선택하는 것은 여성들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여성들은 그들이 한 남자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은 항상 자기 계급 남성들의 계급적 특권을 공유하였다. (...) 계급특권과 인종특권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하나의 응집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모든 억압받은 집단의 여성들은 특이하게도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같은 성격을 가진 하나의 집단(coherent group)이 아니다.”(거다 러너, 앞의 책, 381-382쪽) 거다의 논의에 의하면 가부장제는 여성의 연대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유원과 부엌이 사이에 연대의 가능성이 싹틀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으로 이유원이 가부장제의 구속을 탈피함으로써 자신이 속했던 가부장제적 신분제로부터 월경하여 그것의 바깥에 위치해 있던 부엌이와의 동지의식을 각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1 우연성에 기반한 자아의 창조로부터 혁명과 연대로 나아가는 연속적 과정에 관해서는 리처드 로티의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김동식·이유선 역, 사월의책, 2020)를 참조한다.

힘이 아니라 공동의 위협에 대한 느낌에 기초³²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신을 나머지 인류와 묶어주는 것은 공통의 언어가 아니라 단지 고통에 대한 감수성³³”이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로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언어를 생성하려는 노력 속에서 연대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이유원의 사례는 로티의 서술처럼 혁명과 연대가 하나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유원에게서는 4·3을 혁명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방근이 세계에 대한 담지자로서 느꼈던 ‘고립감’과 ‘허무주의’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원의 혁명은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타자와의 ‘연대’ 속에 새롭게 배치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4.3 문난설, 교란하는 여자

문난설은 『화산도』의 여러 인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다면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 중 하나이다. 그의 예상외로 많은 내력부터가 인물이 지닌 복잡하고 다양한 면모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난설은 그 출신부터가 문제적이다.

문난설은 평양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문준원은 조선총독부 식산국상공과장을 거쳐 평안남도 식산부장이 된 친일파이다. 한편 그녀의 양아버지인 서운제는 인물은 젊었을 때 만주에서 무장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해방 이후에는 우파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자 국제통신사의 회장이자이다.

문난설이 서운제의 수양딸이 된 내막을 알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의 아이러니’라고 할 법한 문난설의 아버지인 문준원과 양아버지인 서운제 사이의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준원과 서운제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도

32 위의 책, 197쪽.

33 위의 책, 199쪽.

료대학 동창이다. 식민지 시기 서운제는 좌우합작 민족운동조직 신간회(新幹會)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후에는 조선 민족주의운동그룹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한다. 형기를 마치고 낙향한 서운제에게 당시 식산국 상공과장이었던 문준원이 경성 은행 용자를 소개하여 과수원을 매입하게 하고, 이후 총독부 농림국에서 강원도 농림과에 소개하여 서운제가 수확한 과실에 대해 출하 판매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 덕에 한때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서운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자본가로서 궤도에 오른다. 한편 현재의 문난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 서울저택을 서북의 서울본부로 임대해주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생활을 한다. 그런가 하면 문난설 본인은 좌익 쪽 당조직의 선전선동기관인 국제신문에 임시로 속해 활동하고 있다.

이상의 짧은 요약만 보더라도 문난설의 이력은 매우 복잡다단하다. 식민지 조선부터 시작해 해방이후 대한민국까지 두루 걸쳐 있는 문난설의 내력은 개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문난설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단 하나의 얼굴을 부여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인 것이다.

문난설의 이와 같은 면모는 연인인 이방근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이다. 문난설은 이방근의 인식범위를 뛰어넘는다. 이 때문에 이방근은 문난설을 장악할 수 없다. 이방근은 문난설을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문난설은 오히려 그를 혼란에 빠트린다. 문난설과 이방근의 관계는 이처럼 포착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노정한다.³⁴

34 오노 데이지로는 이처럼 문난설과 이방근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 긴장과 그러한 긴장이 이방근의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정조에 대해 “허무적인 성”(오노 데이지로, 「제주 4·3항쟁과 역사인식의 전개상: 김석범론」,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268쪽)이라고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서북과 연관된 여자’인 문난설과의 성적 결합 후 이방근이 느끼는 무력감은 4·3에 대한 그의 허무주의적 심상을 표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노 데이지로는 문난설 뿐만 아니라 이방근이 여성들과 맺는 모든 관계를 ‘허무’로 읽어내는데(같은 글, 266-269 참조), 그의 이러한 해석은 여성들의 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결과로, 남성의 목소리만을 담은 불균형한 분석이 서사 해석을 빈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방근과 여성들의 관계에 관한 오노 데이지로의 분석은 여성의 목소리를 배제한 까닭에 『화산도』의 서사로부터 음미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도무지 장악할 수 없는 문난설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유난히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육체의 형상 속에서 한층 더 두드러진다. 이방근은 첫눈에 문난설의 이러한 면모에 알아보고 강하게 이끌린다. 하지만 이방근이 알아차린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녀의 반쪽이다. 문난설의 여러 모습 중 이방근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은 성애화한 그녀의 육체뿐이다. 한편 문난설의 육체에 매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난설을 가리켜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05:146)일 거라고 추측하는 이방근의 모습은 일면 모순적이면서도 흥미롭다. 문난설에 대한 이방근의 이와 같은 첫인상은 이후 ‘석녀’라는 이미지에 고착되는데, 이러한 석녀 이미지와 짝지어지는 것은 ‘불능’에 대한 이방근의 강박이다.

이방근은 문난설이 특유의 육체성으로 육박해 올 때마다 자신이 불능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방근에게 문난설의 육체는 매혹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남성적으로 무능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상기시키는 커다란 위협이기도 하다. 그럴 때 마다 이방근은 문난설이 석녀일거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가진 육체의 압도적 존재감을 상쇄하고 그것이 내면에 불러일으킨 동요와 긴장을 완화하고자 한다.

이방근이 문난설의 육체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는 까닭은 문난설의 육체성이 이방근의 관념적 세계를 교란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포와 매혹 사이를 어지럽게 왕래하는 이방근에게 문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문난설은 실체로서 이방근의 관념을 압도한다. 그녀의 생생한 육체가 이방근의 관념을 향하여 쏟아져 들어올 때 이방근은 속수무책이다.

문난설은 매우 다층적이고 풍부한 내력을 가진 인물이다. 적극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내력만큼이나 내면 또한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친일파의 딸이면서 한때 민족주의자였던 자의 수양딸이 된 것이며, 서북과 모종의 공조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좌익계열 당조직의 선전선동기관인 국제신문에 몸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어떠한 내면의 파동이 있었을지 쉽게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문난설은 기득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권력의 특전을 누리는데 거부감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특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특전을 권력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사

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난설은 양극단의 생활을 오가는데 이로 인한 정신의 파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문난설의 이러한 특징은 이방근이 개인으로서의 자유의 추구하고 혁명에의 참여라는 상반된 요구에 직면하여 실존적 위기에 봉착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근은 문난설이 자신에게 어떠한 감흥을 불러일으켰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그녀를 규정한다. 이방근은 문난설을 부엌이나 이유원과 겹쳐 보는 것으로서 인식과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방근의 상상력 속에서 육감적이고 관능적인 육체를 가진 문난설은 자신의 성적 파트너인 부엌이의 모습과 겹치고, 그녀가 애처롭게 울며 이방근에게 매달릴 때는 오빠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원과 겹친다.

한편 현실의 문난설과 이방근의 애정관계에서 두 사람 중 관계를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것은 문난설이다. 문난설과의 관계에서 이방근은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는 문난설을 향한 충동을 진정시키기 어렵다. 이에 이방근은 자신의 의식이 문난설에게 점령당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앞서가는 문난설을 점령당한 그의 의식이 뒤쫓는다고 말한다. 이처럼 문난설과 이방근의 관계가 역전된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상의 변화가 아니다. 실제 관계에서도 둘의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문난설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 면에서도 문난설이 이방근보다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할 때가 많다. 계엄령 때문에 제주도로 향하는 뱃길이 막혔을 때 인맥을 동원해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문난설이었다. “그녀의 배경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11:413)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난설은 현실에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문난설은 현실의 이방근이 무력해 질 때마다 이방근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그를 돕는다.

이방근은 관념에서든 현실에서든 문난설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문난설과의 애정관계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던 이방근이 문난설을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는 문난설이 이방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청해 왔을 때이다.

“제 이야기를 들어줄래요? 귀찮아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죠.” (11:403)

문난설은 이방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문난설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방근의 인식으로는 회수하기 어려운 복잡한 것이다. 문난설의 삶이 이처럼 다면적인 수 있었던 까닭은 상당부분 그녀가 여성인 것에 기인한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으로 고향을 떠나 경성에 정착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친일파, 민족주의자, 서북 등 다양한 집단과 여러 형태의 관계를 맺으면서 전략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해야 했다. 문난설이 이러한 자신의 이력을 다 고백하고 난 뒤 이방근은 그녀가 자신의 관념으로 포획할 수 없는 낯선 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문난설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안전한 토대를 흔드는 존재이다. 또한 문난설은 남성이 믿고 있는 인식론적 세계에 완벽하게 기입되지 않는 인물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문난설의 욕망은 안정적인 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더욱이 그러한 문난설의 욕망이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고 육체적인 구체성을 띠는 것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문난설이 던지는 질문이 이처럼 육체성을 띠는 까닭은 그러한 질문이 문난설의 구체적 삶으로부터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문난설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가 생생하게 육화한 질문은 관념의 불모성을 매혹하고 압도한다. 나아가 관념에 투입하여 흔들고 부수고 해체한다. 그렇다고 할 때 문난설은 혁명이 이념화 혹은 이데올로기화 했을 때의 불모성을 압도하는 생생한 생(生)과 욕망으로써 혁명의 활기와 역동성을 담보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곧, 터져나올 목소리를 찾아서

『화산도』의 매력적인 여성 인물들은 다양한 활약을 통해 다채로운 방식으로 혁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도래할 ‘혁명’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다. 이처럼 『화산도』의 여성인물들은 4.3로부터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들이 이룩한 그러한 가능성이 서사의

주인공이자 남성인 이방근의 이야기로 회수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본 논문이 확인하고자 했던 ‘다성성’과는 거리가 먼 결론이다.

대화적 다성성은 대화에 참여한 의식들의 성숙함을 전제로 성립한다. 대등한 의식들 간의 갈등과 긴장이야말로 대화적 상황의 발현 조건이며, 의식들이 서로 갈등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혁명’이라는 생성적 가능성을 향해 차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독선적인 누군가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상황은 분명 문제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4·3이라는 사태를 중심에 놓고 겹겹의 억압 상태에 놓인 제주 여성들의 실존에 대하여 『화산도』/4·3의 여성들은 말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한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다.

『화산도』/4·3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나는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고통을 증언하는 목소리와 이것에 대해 되묻는 목소리가 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 느리게, 그렇지만 착실하게 형성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덧붙여 이로 부터 혁명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낙관까지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고 싶다.

이것과 함께 ‘기억’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4·3에 있어 기억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우는 작가의 말을 인용한다.

과거는 과연 영원히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배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것이었으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4·3의 과거가 현재형으로 되살아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을 잊은 사람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뿌리째 없애버리고 죽음에 한없이 가까운 망각으로 몰아냄으로써 우리들을 기억 없는 시체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되살리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기억은 앞으로

망각을 되돌아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전진시키는, 승리를 향하는 담보가 될 것입니다.³⁵

작가의 말은 기억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에게 더욱 더 절실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 발화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이 되고 ‘폴리포니—다성음악’이 되는 것은 아직 이른, 미래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되기 이전상태의 무엇, 예를 들면 만신의 웅얼거림이나 생사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망자의 황설수설일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소리는 단정한 언어가 아니기에 분명 듣기에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형식에 맞춰 정리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듣기’의 과정은 알아듣기 힘든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것이 맞는지 되묻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지난한 행위의 연속일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폴리포니라는 것은 오직 제주도 여성의 목소리에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4·3을 증언하는 제주도 여성의 목소리와 이것에 대해 되묻는 우리의 목소리가 합쳐져 울려 퍼지는 하모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4·3의 기억을 구축하고 그것을 혁명으로 정초함에 있어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목소리를 추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다. 여성을 4·3의 담지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공명하는 것은 4·3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을 비약적으로 확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억압에 짓눌려 있던 피억압자의 기억이 또 다른 피억압자의 목소리가 발화하는 계기가 되어 혁명이라는 화음으로 울려 퍼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석범, 「메시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428-429쪽.
_____, 김학동·김환기 역, 『화산도』, 보고사, 2015.

35 김석범, 「메시지」,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429쪽.

김석범·김시중, 이경원·오정은 역, 문경수 편,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단행본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지성사, 2006.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_____,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각, 2019.

_____, 『4·3과 여성 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각, 2021.

가야트리 스피박,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로절린드 C. 모리스·가야트리 스피박 외,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8, 42-139쪽.

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18.

리처드 로티, 김동식·이유선 역,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사월의책, 2020.

미하일 바흐진 외, 송기한 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90.

미하일 바흐진,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諸)문제』, 중앙대학교 출판부, 2011.

슬라보예 지젝 외, 김영찬 외 역,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10.

논문

강성현, 「제주 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 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고명철, 「탈식민 냉전 속 동아시아 하위주체의 ‘4·3증언서사’」, 『탐라문화』 제 6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21, 101-125쪽.

권귀숙, 「기억의 재구성 과정—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제38권 1호, 한국사회학회, 2004, 107-130쪽.

_____,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젠더연구」, 『탐라문화』 제45권 0호, 탐라문화연구원, 2014, 169-198쪽.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역사비평사, 1999, 154-172쪽.
- _____,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제2호, 문화과학사, 2001, 263-292쪽.
- 김은실,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4·3과 역사』 제18호, 제주4·3연구소, 2018, 189-216쪽.
- 박경열, 「제주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4·3의 상대적 진실—김인근과 현신봉의 생애담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47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231-254쪽.
- 박상란,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 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45호,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9, 301-333쪽.
- 박필현, 「폭력의 경험과 근대적 민족국가—초기 4·3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3권 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25-250쪽.
- 염미경, 「제주 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 인권 그리고 평화」, 『4·3과 역사』 제17호, 제주4·3연구소, 2017, 384-391쪽.
-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1999, 236-258쪽.
- 오노 데이지로, 「제주 4·3항쟁과 역사인식의 전개상: 김석범론」,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6, 187-269쪽.
- 임성택, 「김석범—『화산도(火山島)』의 여성 인물 연구」, 『일본어문학』 제81권 0호, 한국일본어문학회, 2019, 219-232쪽.
- _____, 「김석범의 ‘4·3소설’ 연구—작중 인물의 유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원옥, 「끝나지 않은 애도: 4·3사건 피해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4·3과 역사』 제16호, 제주4·3연구소, 2016, 215-246쪽.

기사·잡지·자료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 선인, 2003.
- 한림화, 「살아남았기에 더 고통스러웠던 4.3 제주여성」, 『제주의 소리』, 2018.

04.28.,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829>> (접속일: 2020.11.23.)

_____, 「기조강연: ‘제주4·3사건’ 진행 시 제주여성사회의 수난과 극복 사례」, 『역사의 상처, 문학의 치유』, 제주4·3항쟁 70주년 전국문학인 제주대회 4·3문학 세미나(제주: 한국), 2018, 9-38쪽.

허영선, 「4·3의 이 깊은 기억, 아무도 모릅니다—허영선 시인이 만난 제주4·3피해 생존 여성들 여성들의 파괴된 삶이 증명하는 참혹한 역사」, 『한겨레 21: 死·삶-4·3을 말한다』 제1204호, 2018.03.26.

Abstract

Reading *Hwasando* from a Feminist Perspective
: Identifying the Starting Point and Confluence of Female Voices

Jang Eunae

Focusing o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characters in *Hwasando* enables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4·3(Jeju Uprising). This is possible because women’s and men’s consciousnesses are in different places. Men monopolize the spheres of perception and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women view the 4·3 from an exceptional and “abnormal” position. In this context, women feel uncomfortable with the understandings of the 4·3 contained in the writings of men. Woman’s senses and impressions function as the condition that produces new ways of exploring and thinking about the 4·3.

Women are alienated from the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at are connected with reality. Therefore, it reconstructs reality in a way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rder. In such a situation, women’s utterances about “history” become distorted and are subsequently reconstructed using unfamiliar language. The reality of women reveals a new aspect of the 4·3 by disturbing and threatening the existing order. Therefore, rather ironically, the attempt to reconceptualize the 4·3 through feminism is an avant-garde project due to the existential weakness of women.

Building on this critical consciousness, Chapter 2 asks why women were removed from the history of the 4·3. Chapter 3 examines problems with the representations of women in *Hwasando*. Finally, Chapter 4 examines how women’s initiative is expressed in relation to the 4·3. Specifically, this chapter focuses on the three women in *Hwasando*. They are Bueoki, a warrior, Lee yoo-won, who is in solidarity with the revolution, and Mun

nan-seol, who disturbs the concept of male.

In this way, by focusing on the female characters in *Hwasando*, this essay seeks to provide a basis for thinking about the 4·3 as a “revolution.”

Key words: Feminism, 4·3(Jeju Uprising), *Hwasando*, revolution, consciousness (voice), polyphony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